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25년 12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1억 원

-모투자신탁 140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2014년 11월 7일 종류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5월 25일)

- 클래스 A : 2014년 11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11월 14일
- 클래스 C-E : 2014년 11월 13일
- 클래스 C-W : 2015년 01월 06일
- 클래스 S : 2014년 12월 0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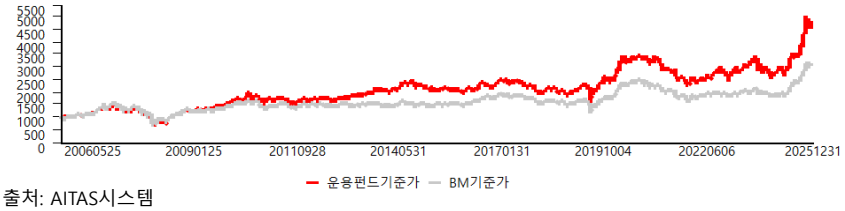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5.62%	24.61%	37.39%	85.07%	64.38%	107.07%	57.88%	380.83%
클래스 A	5.47%	24.11%	36.26%	82.11%	58.98%	96.99%	45.10%	104.24%
클래스 A-E	5.52%	24.30%	36.67%	83.18%	60.89%	100.53%	49.53%	111.35%
클래스 C-E	5.51%	24.27%	36.60%	82.99%	60.56%	99.92%	48.76%	107.79%
클래스 C-W	5.56%	-	-	-	-	-	-	-0.33%
클래스 S	5.52%	24.30%	36.69%	83.24%	61.02%	100.79%	49.87%	114.04%
벤치마크	7.32%	23.06%	37.19%	75.63%	58.71%	88.44%	46.66%	2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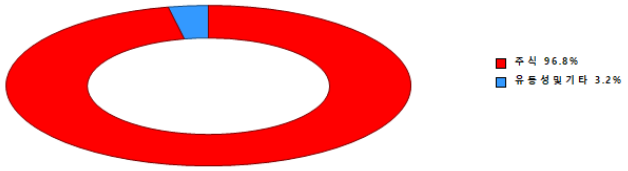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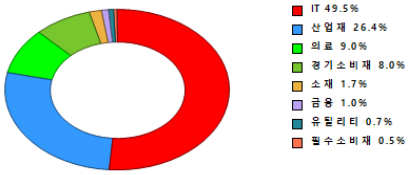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3.1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2.7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5.4	SK스퀘어	금융	2.4
한국항공우주	운송장비·부품	3.9	이수페타시스	전기·전자	2.4
롯데관광개발	일반서비스	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4
신세계	유통	2.8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 (판매 1%)
- 클래스 A-E : 총 연 1.1%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2% (판매 0.5%)
- 클래스 C-W : 총 연 0.7%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0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65%, 신탁 0.03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E, C-W, S :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7.32% 상승한 4,214.17pt, KOSDAQ은 1.40% 상승한 925.47pt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1월부터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 BOJ의 금리인상 우려 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2월 자체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으나, 큰 틀에서는 11월부터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라클 실적 전망치 하회 및 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브로드컴의 마진 둔화 불안감 등으로 KOSPI 지수는 4,000pt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버블 우려가 희석된 반도체, 로봇과 자율주행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화학, 화장품 등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환율 방어 움직임으로 1,433.9원으로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57.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5.2조원)과 외국인(3.5조원)이 순매수한 반면, 개인(-7.7조원)은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2026년 신성장 테마에 대비해 로봇과 우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확보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AI 테마의 확산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2026년 초 예정되어 있는 CES 모멘텀에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했던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기존 고객사들의 수주 규모가 축소되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비중을 펀딩해 내수주로 옮겨 대응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철강, 엔터투어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의약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 추정치 추가 상향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SK하이닉스, 고객 확대 및 월별 실적 성장이 나타난 롯데관광개발,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공고 기대감과 2026년 수주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한국항공우주는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주요 고객사들의 수주 규모 축소로 인한 이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던 엘앤에프, 고객사의 수주 물량 증가로 인해 이원화 우려가 부각된 이수페타시스, 신규 고객사향 동박 공급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과 12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긴축 우려가 완화되었고, 마이크론 실적을 시작으로 다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수는 바닥을 다져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에너지, 식품 CPI를 감안시 단기적으로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매크로 지표는 현재의 유동성 확대와 경기 호조세를 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부 정책,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의 환경에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지원책이 글로벌로도 차별화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테마의 확대, 수주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기존 주도주의 재상승 가능성과 CES 효과 등에 따른 새로운 테마의 출현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예상됩니다.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 디램 현물가 상승에 따른 고객사들의 가격 저항으로 인한 현물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 축소 및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우려를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국내로 보자면 1월 초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HBM 열위에도 불구하고 범용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주요 업체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주요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인해 반도체 섹터뿐 만 아니라 KOSPI 지수의 강세를 지지하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드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되, IT 섹터 내에서 AI 모멘텀으로 새롭게 부각되거나 상승하는 신규 업종으로 우주와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수익구조가 구체화되고 있고 주요 회사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 테마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에 대한 비중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업체들의 관점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수주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적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의 주력 섹터들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되, 한 단계 높아진 원화 환율의 레벨을 감안해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계획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섹터를 발굴하는데 동참하되,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을 통해 수익률 기여에 보다 효율성을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5-12-31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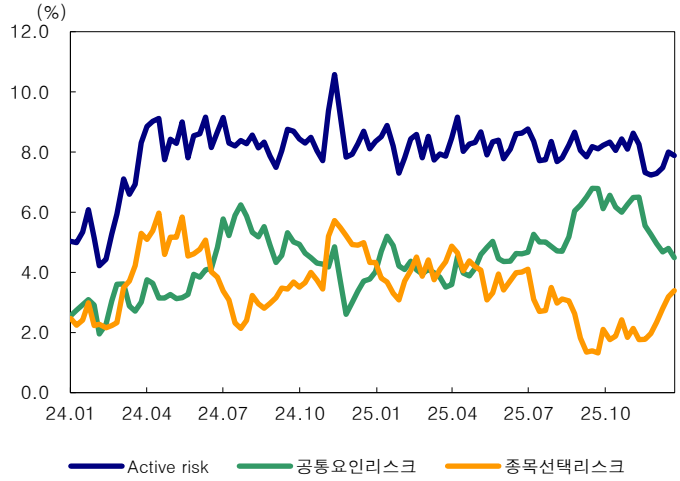
	2025-12-31	2025-11-28
Active Risk [1]	7.64%	7.23%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4.49%	5.27%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3.01%	4.33%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49%	0.94%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3.14%	1.96%
베타	1.09	1.15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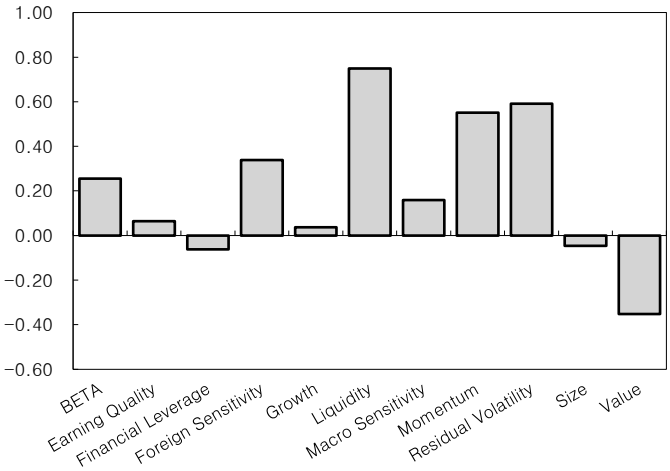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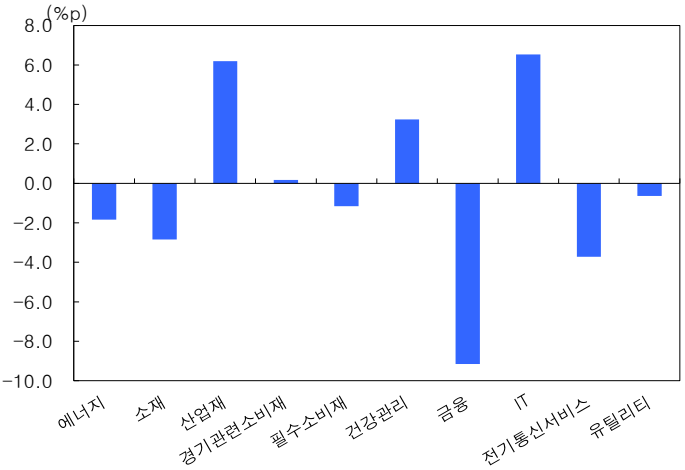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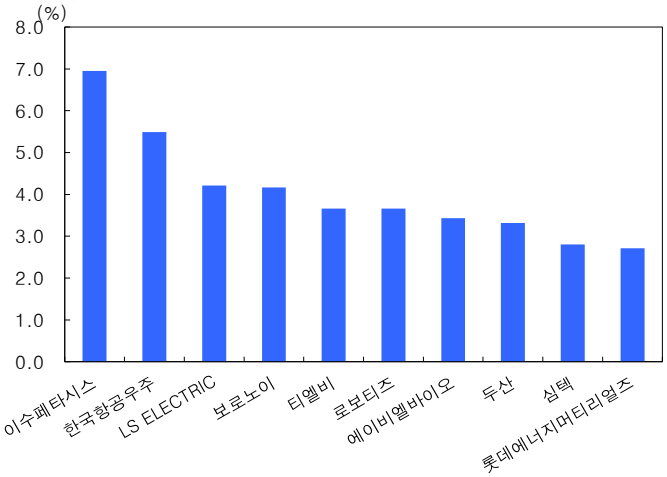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2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7.64%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3개 종목 감소하여, 53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건강관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경기관련소비재', 'IT'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1월말 기준으로는 '한국항공우주'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심텍'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